

제3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 (프롬프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 여러분,

5.18 광주 민주화운동 33주년을 맞이하여
민주주의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33년의 긴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음 속 깊은 슬픔을 지우지 못하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광주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을 잃고 벼를 떠나보낸 그 아픈 심정은
어떤 말로도 온전하게 치유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영령들께서 남기신 고귀한 뜻을 받들어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것이
그 희생과 아픔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나아가 세계인들이 자유와 인권을 배우는 학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을 넘어, 아픔을 넘어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발전의 상징으로 승화되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나라를 더욱 자랑스러운 국가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 여러분,

산업화와 민주화의 고비를 넘어선 우리 앞에

지금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이로운 경제성장으로 국가는 크게 발전했지만
국민의 삶은 그만큼 행복하지 못합니다.

민주주의의 놀라운 진전을 이뤄냈지만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갈등의 골은 메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선배세대들이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국가발전의 길을 열어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정치사회 영역에 머물렀던 민주화를 경제 분야로 더욱 확장시켜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밀려오는 도전을 극복하는 길이고,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5.18 정신이
국민통합과 국민행복으로 승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행복이고,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국민통합의 토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통합과 국민행복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각계각층의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국민 모두가 서로를 믿고 힘을 모을 수 있는
통합의 중심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광주에 힘, 광주에 정신을 믿고
여러분과 함께 국민행복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고귀한 희생으로 민주화 시대를 선도해 주신
광주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민주영령 앞에 깊은 추모의 마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